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길었던 성령강림절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한 해의 활동보고와 신입원 명단을 서면으로 정리해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들은 한 해의 활동 및 재정을 정리해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공감>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열립니다.

각 모임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 * 예배 전에는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 소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들의 목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맛있게 드시되 잔반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식 당 봉 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립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11/27 식당 봉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 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오늘설거지봉사 : 최재욱 이수정 최경미 강지은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종 임주빈 허호범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겨울이 엄려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난한 이들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걱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겨울이 겨울답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주님, 추위에 떠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 돌보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절제에 힘써 자연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분쟁과 다툼,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붙잡고 여겨 주십시오. 판단과 정죄에 앞서 이해와 존중에 힘쓰게 해 주십시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의 마음과 처지를 헤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3:1 인도자
-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한상의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63(통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 ♣ 성경봉독 I. 신29:2-6 윤희준 학생
 II. 신10:12-18 김훈동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폭낭처럼 김재흥 목사
 II. 우리가 믿는 하나님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이성운 곽상준 최경미 김경연 김성한 조영순 배근수
 김금순 안종일 정현주 임주빈 최현옥 장대호 한숙경 이용규 노지현
 김혜영 곽새롬 정종삼 배순미 허신열 김정민 이해령 무명

월정헌금:

고속이 구명자 김미순 박인혁 이봉배 이증자 김창경 전영자 조병주
 조순덕 하정석 이명희 김혜권 박재임 변재민 이소혜 주경진 이윤정

감사헌금:

한상의 정영선 이춘재 김종락 박영신 박수인 이명화 현우리 곽새롬
 김재환 조연우 예인교회청년부 무명9

생일감사헌금:

무명

녹색꿈헌금:

박홍재 청년부 이영순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이준림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정복순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박경원	문영혜
	안정숙	진정숙	김혜권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조영순	박홍재
	박효선	허정윤	임미심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이증자	정현주
	정영선	이현숙	정영선	홍춘숙
	이영란	박미영	박미영	이현순
	박혜경	조항미	최영혜	박혜경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근식	교회	교회

버릇된 가난

이향아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되었나 보다
 요즘은 남의 외투를 걸친 듯 더러 서툰 일이 생기고
 뒤통치가 벗겨질 듯 미끄러운 신발
 거리는 타관처럼 낯선 얼굴로 넘친다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마음 편하기로는 가난만한 것이 없는데
 거기 질이 나서 모자람 없이 살았거늘
 이제 새삼 무얼 바꾸랴
 아무리 일러줘도 부자들은 모르는
 아랫목 이불 깔린 구들장 같은
 발 뺀고 기대기 은근하고 수더분한
 그러다가 금세 눈앞이 젖어드는
 그보다 좋은 세상 어디 있으랴만
 나도 모르게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나 보다

찬 양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말고 가난한 이의 유익을 구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여기며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살길을,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살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	고린도전서 / 김재흥 목사 기도 : 조관행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공동기도	이성경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김정애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종락 김대근 박영신 백성래 정현숙
	헌금위원	조병무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기도의 정화

나는 마흔두 살에야 사제서품을 받았다. 청소년기에 한눈팔지 않고 평생의 길을 선택한 동료, 형제들을 나는 늘 부러워했고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지금도 그렇다. 그들의 순수하고 고결한 응답과 비교할 때 나는 청년기에 혼란과 방황의 사막을 건너서야 부르심에 응답한 늦둥이다. 나는 그들의 순수성을 본받는 마음으로 신학교 생활을 했고, 배우고 도움 받으며 사제가 되었다. 내 사제직은 동료들의 공동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백한다. 사제서품을 받으면서 내 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라. (시편116)”

그리고 나를 사제로 서품한 교회와 사제직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나는 신부이니 나를 필요로 하는 부르심에는 기꺼이 응답하자!”

신부가 되었지만 나는 지식과 총명성이 부족하고 능력도 뛰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게 많은 것을 기대했다. 자신들의 운동에 함께하기를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가족사를 보고 ‘노동의 새벽, 박노해 시인의 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나의 의식 성향을 규정하기도 했다. ...

경제적으로 서민층인 교우들은 나의 현실 비판적인 강론을 좋아했고, 부유층 신자들은 임기 동안 조용히 지내다 가주기를 원했다. 청년시절의 친구들은 나환우와 행려자를 돌보는 활동에 결합해달라며 나를 초대했다. 원고 청탁이나 강의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 거절하지 못했다. 밤늦도록 글을 쓰고 강의와 미사에 불려 다니고 후원금을 내고, 술자리를 함께하고, 백수 청년들과는 푼돈을 나누기도 했다. 모든 부르심에 응하지도 못했고 힘들었지만, 정말 애썼다.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기본으로 주어진 본당 사목에 더욱 성심으로 임해야 했다. “자기 소임에는 불성실하면서 운동하는 데만 쫓아다닌다”는 비난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료 사제들이나 교우들 중엔 내가 열정이 넘치고 기질적으로 이곳저곳 쫓아다녀야 힘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해 응답하기’라는 삶은 만족스럽거나 명예로운

생활은 결코 아니었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필요로 했고, 구약의 요나 처럼 도망가고 싶은 심정은 늘 내 의식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렇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도 받았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사물에 대한 식별력, 내적 충동의 체험 등을 들 수 있겠다. 어떤 문제를 궁리하고 풀 어갈 때 대부분 직관과 영감으로 내린 결정들에서 좋은 결과가 주어졌다. 더러는 기초적 사유도 계획도 없이 말부터 터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전개할 무렵에 특히 더 그랬다. ...

산 위의 마을 건립 과정도 그랬다. 무슨 장학기금처럼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다. 우리 시대 무소유의 신앙공동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환락의 세상에 빛이 되고 구원의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목적성의 빛이 너무 강렬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삶이 분명하다.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묻기 위해 ‘마을건립 청원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이었다. 내가 먼저 시작하여 100일 동안 기도했고, 공동체 청년들과 준비모임에서 이어받았다. 무엇보다도 ‘천일’이라는 기간 설정이 중요했다. 기도 자체에 대한 정화가 되기 때문이다. 기도 가운데 섞여 있는 이기적 사욕과 부정성을 정화시켜내는 힘이 있다. ‘꼭 필요한가? 진실하고 순수한 방법인가?’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청원이 바뀔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다.

신앙인은 지금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정화의 불길에 태워볼 필요가 있다. 금도 강철도 그렇게 제련된다. 내가 추구하는 공동체 마을도 꼭 필요하다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이루어질 일이고, 아니라면 애만 쓰고 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안 되거든 “부르심으로 믿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내 소명은 아닌 것 같더라”하고 물려서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기도의 정화’이다.

천일기도를 시작한 지 꼭 2년 만에 지금의 산 위의 마을 땅을 얻었다. 그곳에 등지를 틀기 시작한 지 또 2년 만에 내가 지금 산 위의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무엇을 청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스승께서도 “네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 줄은 아느냐?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셨던 것이다.